

‘매각 그림자’ 시페퍼스, 존치 시험대 올랐다

모기업 재정난에 구단 운영 난항...인수 기업 물색 광주·전주·구미 등과 연고지 협상...이전 가능성 통합특별시 앞두고 유일 동계 프로팀 유지 촉각

광주에 연고를 둔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존치의 길림길에 서 있다. 모기업의 재정난과 맞물린 구단 경영 위기로 매각을 추진하며 팀의 미래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일 동계 프로 스포츠팀의 존치 여부는 단순히 구단 문제를 넘어 지역 스포츠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AI페퍼스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창단한 AI페퍼스는 광주시와 5년간 연고지 협약을 맺고 영주종합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AI페퍼스는 지난 2021~2022시즌 V리그에 합류한 이후 광주·전남 유일의 동계 프로 스포츠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5~2026 시즌에는 역대 최고의 성

적을 거두는 성과도 거뒀다. 16승 20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했고, 창단 이후 첫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문제는 모기업 재정난으로 구단 매각에 나선 AI페퍼스가 오는 5월 연고지 협약 종료로 앞두고도, 연장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프로배구단의 운영 주체는 기업이다. 여기에 연고지 협약을 한 지자체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AI페퍼스는 매각 추진 이후 아직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선행돼야 할 기업 인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연고지 협약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AI페퍼스는 광주를 포함해 전주, 구미 등과 연고지 협약을 추진 중이다. 기업 또한 2~3곳 정도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광주페퍼스타다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전에서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AI페퍼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다음 달 연고지 협약이 종료되는 데다 선수 계약 문제도 있다. 8일 프로배구 FA 시장이 열리면서 박정아와 이한비가 협상에 나섰다. FA 마감일은 이달 21일이다. 여기에 기존 선수단 계약 마감일도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I페퍼스는 구단 매각과 관련한 내용

을 5월까지 정리한 뒤, 한국배구연맹(KOVO)에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AI페퍼스 관계자는 “협상 중인 지자체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인수할 기업을 병행해서 찾아야 한다. 운영 주체는 기업이 때문이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지만, 선수 계약 문제도 있기에 5월 말까

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연맹에 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기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으나, 해체나 운영 유지나를 두고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페퍼스가 연고지를 이전할 경우 스포츠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 유일의 동계 프로 스포츠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고지 협약보다는 기업 인수가 우선이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결국 운영은 기업이 한다. 기업 인수가 진행돼야 연고지 협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인수 기업이 생기면 광주가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 다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지역 스포츠 지원과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전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AI페퍼스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오는 7월 1일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 스포츠 환경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를 대표할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에서 AI페퍼스는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유일한 동계 프로팀이라는 상징성과 활용도가 높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통합과 브랜드 형성, 시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전과 유지의 분기점을 앞둔 AI페퍼스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구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7일 광주 동구 불러스 불링장에서 열린 '제15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불링대회'에 참여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국 시각장애인 볼리, 광주서 열정의 ‘스트라이크’

‘제15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불링대회’ 성료 12개 시·도 250여명 참가...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전국 시각장애인볼링 선수들의 축제인 ‘제15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불링대회’가 지난 7일 광주 동구 불러스 불링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광

주장애인불링협회와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했다.

행사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선수 100명을 비롯해 임원 및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기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 중

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맹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TPB1(남·여)을 비롯해 약시 선수들이 참가하는 TPB2, TPB3(남·여) 개인전과 함께 통합등급 3인조 단체전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장애를 넘어선 도전과 열정으로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감동을 선사했다. 시각장애인볼링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체계적인 등급 분류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국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장으로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를 딛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도약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구례서 장애인체전 준비

2차 대표자회의서 운영 논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8일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2차 대표자회의의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개·폐회식 준비 상황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구례군 전남체전 TF팀은 개·폐회식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과 종합 안전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도 장애인체육회는 최종 참가 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경기 대진 추첨을 진행하고 주요 공지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의미를 더한다. 전남 22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남 단독 장애인체육대

회로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상징성이 크다.

구례군과 도장애인체육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야외 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로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구례군의 따뜻한 환경과 철저한 준비가 이번 대회를 더욱 뜻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자연을 땅 구례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을 슬로건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지원 나선다



지난 6일 광주스포츠과학센터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11공수특전여단 부대원이 전투 체력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육군보병학교·11공수특전여단에 맞춤형 체력 분석·훈련 지원 스포츠과학 기반 민·군 협력 모델 구축...강군 육성 기여 기대

광주시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국군 전투 체력 과학화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강군 육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스포츠과학 역량을 군 전투체력 향상에 적용한 민·군 협력형 선도 모델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육군보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1공

수특전여단과도 협약을 맺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육군보병학교에는 대위 및 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투 체력 측정과 스포츠과학 기반 정밀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1200여명의 소위와 대위를 대상으로 부상 예방과 회복 전략에 대한 이론교육과 심심 프로그램을 운영. 일선 부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 11공수특전여단에는 100명의 특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훈련 체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부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방부는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군 협력 모델은 스포츠과학을 활용해 군 장병의 전투 체력 향상과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과학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스포츠과학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군 협력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구축 교육으로 구성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체육회, 임원 4명 보선...조직 안정성 강화

교육·경제·체육계 인사 합류...체육서비스 향상 기대

전남도체육회가 신규 임원 4명을 선임하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체육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도체육회관 5층 회담실에서 신규 임원 선임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임원 보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보선은 기존 임원의 사임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달 27일 제62차 이사회 최종 결의에 의해 임원 보선이 확정됐다.

이에 도체육회는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61명, 감사 3명 등 총 72명의 집행부 임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신임 임원에는 김제형(전 신안교육지원 교육장), 김정희(상무자동차운전학원 대표이사), 윤원상(취청산유류 대표이사), 김경우(전남체육중·고등학교장)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발



왼쪽부터 김경우, 윤원상,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김제형.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전을 도모하고, 지역 체육 현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고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체육회는 이번 임원 보선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체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새롭게 합류한 임원들과 함께 도민 누구나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